

바다는 오늘도 파도에 사연을 실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파도가 한 번씩 밀려왔다 되돌아가면 수많은 이야기가 백사장에 펼쳐진다. 생업을 바다에 두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이야기, 땅을 가꾸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이야기, 바다를 찾아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얻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일어난 다양한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가슴에 품었다가 파도에 실어 백사장으로 내보낸다.

방방곡곡에서 흘러들어온 맛과 색이 다른 물들을 받아들이느라 아픔 또한 컸으면 만 아무런 내색도 없이 수많은 생명체를 품고 나누어 주는 바다는 언제나 넉넉하다.

바다는 어머니의 품

산을 남자 비유한다면 바다는 여자에 비유하고 싶다.

하늘까지 닿을 푸른 치마폭을 두르고 수많은 생명체를 출산해내기 때문이다. 그 생명체를 품고 키우느라 아픔 또한 커서 가끔씩 몸을 들척이고 표효하며 하얀 거품을 한처럼 토해 내지만, 며칠이 지나면 언

제 그랬나는 듯이 또 푸르고 잔잔한 모습으로 다가와 말없이 많은 먹거리를 내어준다.

고기, 해초, 소금, 지하자원은 물론 깊은 몸속의 심층수 까지도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는 바다는 어머니의 품이다.

자식을 뱃속에 잉태하고 모진 산고를 치루며 낳아 성인이 될 때 까지 키워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주어도 자식들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듯이, 사람들도 수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바다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

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바다가 부른다

우리 고성군은 바다와 인접해 있다. 휴양지를 살펴봐도 삼림욕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흔치 않고 해수욕장이 26곳이나 된다고 한다.

논과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바다가 풍성해야 잘 팔린다고 한다. 그래서 농민들도 풍어를 기원하고 고기가 안 잡히면 “바다가 말라서 어찌나?” 하며 함께 걱정을 한다.

황연옥 칼럼

시인, 교사



바다 이야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다. “아침 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거진 앞바다가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실감이 나곤 하였다. 아침 햇살에 반사된 금빛 물길을 가르며 고기잡이를 떠나는 배들은 만선의 희망을 싣고 바다로 나가고, 저녁에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은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며 들어온다고 노래한 동요 작사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바다에 떠 있는 고깃배와 끝없이 긴 수평선을 바라보고 이 노래를 부르며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먼 훗날 기쁨의 선물을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곤 하였다.

바다는 오늘도 우리를 부른다. 그 바다의 부름에 감사하며 온 군민들은 바다를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해마다 고장 특산물을 알리고 풍어를 기원하며 명태축제도 열고 있다.

올 겨울, 우리 고성 바다에 풍어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래서 항구마다 그 예전처럼 북적 북적한 삶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으면…….

언제나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언제나 자연스럽지 못한 아침을 맞이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풍경은 나름대로 그 멋을 지니고 있었으나, 작위적이었다. 눈을 비비며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혹시나 간밤에 무슨 연락이라도 와있는지 휴대폰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한 어플로 오늘의 날씨와 간단한 뉴스를 보며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하였다.

집을 나와서는 항상 손에 쥐고 사는 휴대폰으로 버스의 현재위치를 추적하였다. 아직 도착하려면 7분이나 남았기에, 그동안 시간을 죽이고자 또다시 폰으로 아침에 미쳐 다 보지 못한 뉴스를 보았다. 곧 버스가 도착하는 걸 보니 역시 7분이란 매우 짧은 시간인가 보다. 버스를 타고 다행히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그저 멍할 뿐이었고, 이럴 바에 차라리 부족한 잠을 자는 게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내 꾸벅꾸벅 즐기기 시작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는 않았다. 물론 길을 때 휴대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나는 그렇

다. 하지만 거리를 걷다보면, 걸어가면서 거미 다리 같은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 보는 내가 아슬아슬할 정도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걷는데, 저러다 사고라도 안 나길 바랄 뿐이다. 예효, 저런 사람들은 분명 휴대폰 중독임에 틀림이 없다.

집에 돌아올 때에도 난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딱히 검색할 것은 없었지만, 웬지 인터넷을 켜놓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러 가지 아무렇게나 검색창에 입력을 해보았다.

ddddddd, 으아아아, 심심해요……. 이런 것들이 자동검색어 목록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심심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 놀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멍하게 검색창 매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혹시나 옆에 사람이 불까봐 가끔 가다 손을 움직이는 걸 잊지 않았다.

집에 와서는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다. 이때에는 휴대폰이 필요 없다. 저 멀리 폰을 던져버린 나는 오늘의 피로를 풀 겸 샤워를 하기 시작하였다. 딱히 힘든 일을 한 건 없는 거 같은 데 이상하게 피로하다. 요

우리 사는 이야기

김지연(간성읍, 주부)



스마트한 인생

새 세상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운동을 좀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스마트한 세상인니까 말이다.

잠깐 TV를 보고 컴퓨터를 한 다음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였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대화하면 만났을 때의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또 굳건한 인맥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으니 참으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닐 수 없다. 또 말보단 문자를 하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다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무려 문자비가 무료이기에 문자를 안 하면 괜히 나만 손해가 아닌가?

12시가 넘었다. 이제 자려고 누웠다. 거대한 피로감이 나를 엄습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들지는 않았다. 분명히 TV 볼 때까지만 해도 잠이 쏟아졌는데 말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인가? 뭐 눈감고 있다 보면 잠이 들것이다. 그렇게 난 1시간을 뒤척이다 잠에 들었다.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제일모직(001300)

저물어 가는 한 해를 서서히 되돌아 볼 시점에 이르렀다. 올해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말미암아 유독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자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뒤따르므로 서두르지 말고 유럽 사태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투자시점을 저울질해도 나쁘지 않다. 투

자를 쉬는 동안 우량한 기업들을 발굴, 재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

필자는 오늘 1954년 설립된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 한 곳인 제일모직(001300)이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제일모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류 사업이다. ‘빈폴’, ‘로가디스’를 비롯해 소비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의류 브랜드가 상당히 많다. 의류사업을 시작으로 합성 섬유를 개발, 종합섬유 메이커로 발돋움하였고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제일모직은 제2 도야기를 맞았다.

초창기 의류사업에서 지금은 케미칼과 전자재료 부문이 주력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자재료 사업 부문은 고속 성장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1996년 반도체 회로 보호재인 EMC를 개발하면서 시작된 전자재료 사업은 2차 전지용 전해액, 전자파 차폐재인 EMS를 비롯해 LCD용 편광필름 등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IT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제일모직은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엔진을 준비하고 있다. 수처리 멤브레인 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멤브레인(Membrane)은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을 뜻하는데 반도체나 LCD 공정, 2차 전지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 매우 기대되는 신사업 부문이다. 항상 미래 먹거리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제일모직은 주목해야 할 1순위 기업으로 판단된다. 정영영(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